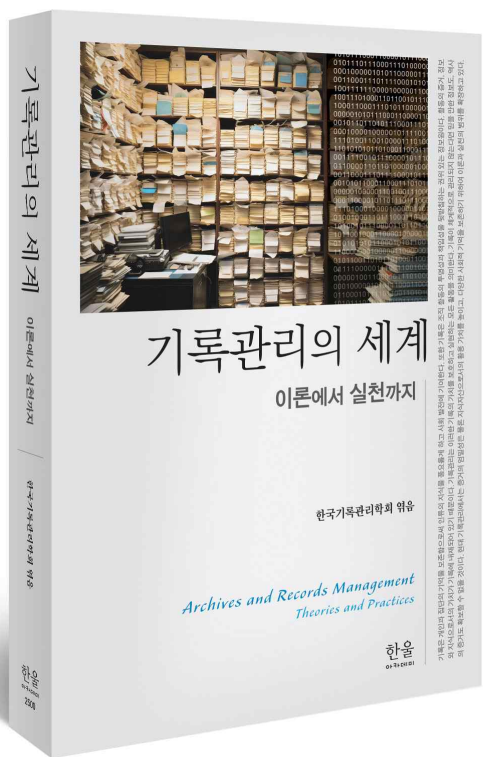


# 기록관리의 세계

이론에서 실천까지



## 기록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인류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기록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인류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기록은 조직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정보원이다. 활동의 증거, 정보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기록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는 이러한 기록의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믿을 만한 정보도, 역사의 증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기록관리에서는 증거의 엄밀성은 물론 지식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 엮음  
 김유승·김자경·김지현·박지영·설문원·송정숙·윤은하·이승억·  
 이연창·최재희·현문수 지음  
 신국판(153×224) | 528쪽  
 양장 50,000원 | 무선 29,800원  
 한울엠플러스(주) 퍼냄



편집 배소영(031-955-0623, soyeong@hanulbooks.co.kr)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031-955-0655(대표전화) | 031-955-0656(팩스)  
 www.hanulplus.kr | blog.naver.com/hanulnew

## 기록관리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사회제도로 형성되었는가?

### 전문적 기록관리를 위해 어떤 원칙과 절차가 필요한가?

###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관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때 그 기록이 없었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많은 답을 할 수 있다.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 우리는 이 밖에 수많은 상황에서 기록이 수행하는 역할을 말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은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 기록관리이기 때문이다.

-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를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여 공공기록관리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기존 개론서들을 보강하고, 현대 기록관리의 특징인 다양성을 반영했다.
- '용어해설'을 책 말미에 별도로 편성했다. 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주제어, 인물명, 기관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 각 장 마지막에 '다시 생각해보기' 항목을 마련하여 성찰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 각 장의 내용

**1장 기록과 기록관리**에서는 기록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기록관리의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록이 왜 개인이나 조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0여 년간 기록관리를 위한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개괄하고, 기록관리의 중심 주체로서 기록전문직의 가치와 제도도 간략하게 서술했다.

**2장 기록관리제도의 역사**에서는 서구와 한국을 중심으로 기록관리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나라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 다루었다. 먼저 근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서구 기록관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의 기록관리제도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제도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고찰했으며 특히 현대에 비중을 두고 서술했다.

**3장 민간기록의 이해**에서는 민간기록을 개인, 시민공동체, 시민단체, 기업과 같이 기록의 생산·관리 주체별로 범주화하거나 사회적 사건, 일상, 예술 등과 같이 기록화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민간의 기록관리 방식을 수집형과 참여형으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4장 기록의 평가선별**에서는 20세기 이후 전개된 기록 평가선별의 역사를 등장 배경과 핵심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영미권과 한국 평가선별제도의 특징적 측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5장 기록의 분류와 기술**에서는 기록 조직을 정리, 분류, 기술, 메타데이터로 구분한 후 기본 개념, 관련 원칙과 변천 과정, 주요 표준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국제표준 동향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공공기록 조직화 현황과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6장 기록의 보존**에서는 기록보존의 개념과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보존 전략은 물론 사후적인 보존 조치, 기록매체별 취급법과 열화 및 훼손 원인별 대비법을 제시하고, 재난대비 방법 및 계획도 다루고 있다.

7장 기록정보서비스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과 절차를 시작으로 서비스의 유형, 이용자 유형별 정보 요구와 서비스 전략, 서비스 평가, 정책과 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정보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향과 전망을 기술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8장 알권리와 정보공개에서는 알권리의 개념을 권리의 성격과 대상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서구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형성·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한편 비교적 일찍 정보공개법령을 제정한 한국에서 법을 이행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밝히고 있다.

9장 전자기록관리에서는 먼저 전자기록의 개념과 구성요소, 품질요건을 정리하고, 국제표준(ISO 15489-1)에 제시된 기록관리 과정을 전자기록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날로 새로워지는 정보기술이 기록의 생산·관리에 미증유의 도전을 안겨주는 상황에 대처하는 기록관리계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10장 전자기록시스템에서는 기록전문가가 알아야 할 기록시스템 관련 기본지식과 동향을 다루었다. 먼저 기록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기록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록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을 포괄적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 공공부문의 기록시스템 관계 유형을 설명하고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의 특징, 기능요건, 사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기록시스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 시스템 개발 방식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론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11장 디지털 보존 정책은 9장과 10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으로 편성했다. 먼저 디지털 보존의 개념과 보존 전략, 관련 표준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럽 4개국(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8개국 국가기록관리관이 수립한 디지털 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 지은이 소개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박사(문헌정보학)
-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역임
- 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논문: 「행정각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2023), 「국회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연구」(2022),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2018, 공저), 「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2015, 공저),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협과 과제」(2014) 등

### 김자경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기록관리학), 영국 University of Plymouth 석사(Archival Practice)
- 여성가족부 기록연구사
- 현 국가기록원 기록연구관
- 논문: “The Digital Preservation Policy and Strategy in Archives”(2022),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발전방향」(2004)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 대학교 박사(문헌정보학)
- 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논문: 「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연구」(2023), “Reusing qualitative video data”(2020),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2012) 등

**박지영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문헌정보학 전공)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문헌정보학)
- ㈜다음소프트 지식분석팀 대리,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 연구원
- 현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저서/논문: 『분류란 무엇인가』(2023, 역서), 『공연예술 정보와 FRBRoo, 객체 중심의 연계 모형』(2021, 공저), “Aggregating distributed KOSs”(2023), 「국가전거와 ISNI 연계 및 활용 방안 연구」(2023, 공저) 등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문헌정보학)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한국기록학회 회장 역임
- 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저서/논문: 『기록학의 지평』(2021),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2022),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2021),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2020) 등

**송정숙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고전문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서지학)
-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역임
- 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 논문: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2017), 「기록으로 본 부산의 산업변동과 로컬리티」(2016), 「지역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과 재구성: 일본 지바[千葉]현 다테야마 [館山] 사례를 중심으로」(2015),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2011) 등

**윤은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학),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석사(문헌정보학), UCLA 박사(문헌정보학)
- 현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논문: 「시민기록의 개념적 고찰」(2023), 「국내 민간기록관리의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2022), 「민간기록관리와 아카이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2021) 등

**이승억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한국현대사)
- 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논문: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2021, 공저),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2014), 「경계밖의 수용: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

증」(2013) 등

#### 이연창 한국문헌정보기술 아카이브센터 연구소장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기록정보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록학협동과정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겸임교수, ISO TC46 SC11(Archives/records management) 한국위원
- 현 한국문헌정보기술 아카이브센터 연구소장
- 논문: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연구」(2022)

#### 최재희 전 국가기록원 원장

-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서양사)
-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대통령기록관 관장, 국가기록원 원장 역임
- 논문: 「영국 공공기록물 선별체계의 역사적 흐름과 의미」(2017), 「잉글랜드 볼턴(Bolton)의 로컬리티 기록화와 역사 연구」(2016),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4),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과 기록의 상호 관계: 영국의 역사워크숍운동을 중심으로」(2014) 등

#### 현문수 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기록관리학)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역임
- 논문: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한 증거능력 구현체계 연구」(2022), 「전자기록 평가의 동향과 과제」(2022), 「차세대 공공 전자기록 조직 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2021) 등

## 차례

---

### 1부 기록관리의 의미와 제도

- 1장 기록과 기록관리: 현대 사회에서 기록과 기록관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설문원)
- 2장 기록관리제도의 역사: 기록관리제도는 국가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가? (최재희)
- 3장 민간기록의 이해: 민간영역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윤은하)

### 2부 기록관리 프로세스

- 4장 기록의 평가선별: 영구 보존할 기록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승역)
- 5장 기록의 분류와 기술: 기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박지영)
- 6장 기록의 보존: 기록을 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송정숙)
- 7장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의 활용과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김지현)
- 8장 알권리와 정보공개: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김유승)

### 3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 9장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문수)
- 10장 전자기록시스템: 기록시스템 도입과 운영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연창)
- 11장 디지털 보존 정책: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김자경·현문수)